

■ 특특뉴스

타워크레인 태업·작업거부 면허정지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할 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들은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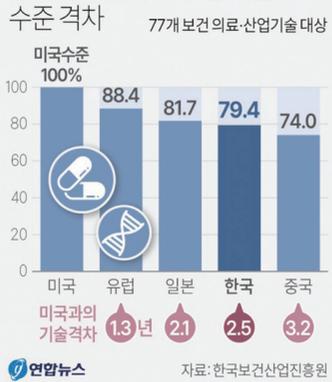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월 2회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 그래픽 경제

주요국보건의료·산업기술 수준 격차



한국 보건의료·기술, 미국의 79.4%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기술수준이 미국의 79.4%이며, 기술격차는 2.5년으로 평가됐다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밝혔다.

진흥원은 폐암 등 42개 질환 분야와 합성약품 등 35개 산업분야를 더해 77개 보건의료·산업기술을 대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미국의 기술수준을 평가해 발표했다.

“콘텐츠 개발... ‘꿀잼도시 광주’ 힘 보태겠다”

힘내라! 중소기업

(주)록연

치평동에 1인방송 스튜디오 마련

유명 유튜버들과 협업·교류도

로컬크리에이터 소통의 장 마련

“유능한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광주를 찾게끔 만드는 콘텐츠를 발굴해 ‘꿀잼도시 광주’ 조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경관 개발, 미디어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광주를 관광도시로 이끌어가는 기업이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주)록연(대표이사 윤진영·37).

‘윤진미디어랩’으로 시작한 록연은 지자체·지역 예술작가들과 함께 도시 경관 조성 사업을 진행해왔다. 낙후된 지역이나 도심 곳곳에 조형물, 벽화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면서 도시공간의 문화·심리적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인 것.

이제는 광주를 ‘문화 도시’ 이름에 걸맞은 도시로 탈바꿈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복합문화콘텐츠 분야 선도에 힘쓰고 있다.



(주)록연 윤진영 대표가 본사 교육실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윤진영 대표는 “광주는 일명 ‘노잼도시’라 불리면서 관광과는 거리가 멀고 매년 여러 이유로 청년들도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광주를 관광도시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사람들에게 먼저 지역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콘텐츠 제작,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등이 있는데 이를 위해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본사에 방송스튜디오, 호리존 스튜디오

오, 회의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C-Studio)를 마련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시설인 이곳에서는 개인 방송, 디지털사이니지, 라이브커머스 등의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록연은 눈길을 끌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이상사클라스 ▲하루세끼 ▲꿀잼 ▲파동tv ▲아미tv ▲루다의 댄스연구소 등 유명크리에이터와 활발한 교류·협업도 이어가고 있다. 수십만명 구독자를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로컬크리에이터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살롱’ 문화를 조성하고 광주지역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몰두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항상 지역과 상생해 나가겠다. 록연이 성장한다는건 광주의 문화도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지역 크리에이터들이 광주 대표 유명 콘텐츠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홍승현 기자

광산구-농협은행 광주본부, 24억 특례보증 협약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산구청과 함께 구청 회의실에서 광산구 내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협약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내춘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김재일 우산신협동조합 이사장, 박성구 서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 박도영 한마음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광산구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지원하고, 대출금 이자 중 4.5%를 1년간 광산구에서 이차 보전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박내춘 본부장은 “경기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광산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도모하고 제1금융 은행으로서 광산구청의 동반자 역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에 국한되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023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식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광산구청 회의실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산구청이 참여한 가운데 2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 제공

우리 고향 사람, 기부로 실천하는 고향 사랑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대축제

4.28 금 - 30 일

수원메세 수원역

